

주체의식(Self-identity)의 풍화과정 : 피체랄드의 *Tender Is the Night*

權澤英

I

작품이 작가의 경험과 의식을 바탕으로 구조되는 것은 예외적인 게 아니다. 그러나 F. Scott Fitzgerald의 *Tender is The Night*만큼 작가의 자의식이 깔려있는 작품도 드물다. 피체랄드는 비교적 남들보다 빠르게 문학적인 진출을 보였으면서도(24세에 *This Side of Paradise*, 29세에 *the Great Gatsby* 등) 성숙한 시기에 당시의 관심을 모으지 못했고 일찍 쇠퇴하여 불우하게 44년의 삶을 마쳤다. 명문 프린스턴대학에 들어갔으나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아내 Zelda와의 결혼생활도 그녀의 연이은 발작(breakdown)으로 행복하지 못했다. 심혈을 기울였던 *Tender is the Night*도 기대만큼 관심을 모으지 못했고 결국은 할리우드에서 영화시나리오도 쓰다가 알콜의 탐닉속에서 마지막 작품(*The Last Tycoon*)을 끝내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죽었다. 재능과 큰 꿈이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그의 생애는 이 작품연구에 큰 몫을 하는 듯하다. 성공을 약속받은 어느 젊은 정신과 의사가 부유한 배경을 가진 그의 환자와 결혼함으로써 능력을 헛되히 낭비하고 쇠퇴(degeneration)해버리는 과정을 그린 이 소설은 쇠퇴과정을 더듬어보면서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다.

피체랄드는 그가 고등학교에 들어 갈 무렵을 돌아보며 자신이 일종의 귀족적 에고티즘("a sort of aristocratic egotism")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¹⁾ 이는 자신이 지닌 여러면의 우월성으로 "기계적인 천재" ("a mechanical genius")의 가능성만 제외하고 무엇 이든지 될 수 있다는 상당한 자부심이었다. 험담하고 운동과 춤에 능하다는 신체적 우월감과 개성, 매력,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 특히 여자를 끄는 미묘한 매력에 대한 확신감은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자신을 위협스럽게 했고 정신적으로는 재능에 대한 허영심을 갖게 했다고 말한다. 한편 이러한 우월성에 대조를 보이듯 그는 도덕적으로 나약했다고 고백한다. 명예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했으면서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통솔력이 약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기분에 사로 잡히는 반면 근본적으로 꾸준한 자거개발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속시키는 본질적 용기가 결여되었다고 한다. ("I knew that at bottom I lacked the essentials. At the last crisis, I knew I had no real courage, perseverance or self-respect") 자신의 기분에 쉽사리 빠져드는 그는 단련의 의미("the meaning of discipline")를 알면서도 사람들과 파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다.²⁾

1) Andrew Turnbull, *Scott Fitzgerald: A Biograph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2), pp. 34-35.

2) Ibid., 103 참조 "People and parties were a constant temptation to Fitzgerald, who nevertheless knew the meaning of discipline."

자존(self-reliance)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그것을 발전시키기에는 본질적으로 나약했던 그는 점차 알콜에 탐닉하게 된다. 게다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Zelda의 정신병으로 인한 가정적 뒷바라지는 그의 잠재적 능력을 실현할 기회를 빼앗은 채 마치 이 소설의 주인공 Dick가 그러하듯이 「위대한 게츠비」의 저자는 世人的 안목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자기몰두(self-indulgence)의 위험성과 가장 긍정적인 미덕은 일과 의무와 용기라는 신념은 *Tender is the Night*이 출판되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그의 편지에 자주 나타난다.³⁾ 굳이 “a confession of faith”라는 작가 자신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작품에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 사교생활을 통해 본 유희계급(leisure class)들의 삶의 미각(taste),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등이 녹아있다. 헤밍웨이는 이 소설이 피체랄드 자신의 자기동정을 느끼게 해주어 싫다고 했지만(“the novel’s suggestion of self-pity”) 한 인간이 걸는 실패의 삶을 통해 그 원인들을 감지하므로써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작품의 도덕성은 크다고 하겠다. 7년내지 8년간의 구성, 재구성, 수정, 재수정 등을 통한 창작과정 맞인지⁴⁾ 작품의 구성이 산만하여 출판당시(1834)는 그가 들인 노력과 기대만큼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특히 심리적 내면세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탓으로 어느 비평가의 불만처럼 자칫 의미전달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다. 1932년의 마지막 원고에서 그는 주제(“general plan”)를 이렇게 못박았다고 한다.

“The novel should do this. Show a man who is a natural idealist, a spoiled priest, giving in for various causes to the ideas of the haute Burgeoise, and in his rise to the top of the social world losing his idealism, his talent and turning to drink and dissipation. Background one in which the leisure class is at their truly most brilliant and glamorous such as Murphys.”⁵⁾

천성적으로 이상주의자이며 “a spoiled priest”인 주인공이 거대한 재벌기업에 휩쓸려 사교계에서는 정상에 오르지만 그의 이상과 재능을 잃고 술과 성적적 파멸을 초래하고만 있다는 것이다. 이어 “Further Sketch”에서 피체랄드는 주인공의 훌륭한 개성의 파피가 사소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내적갈등과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타협되는 비극적 힘(“really tragic forces”)에 기인한다고 덧붙인다.⁶⁾ 이제 이러한 계획이 작품속에 얼마나 잘 그려져있고 주인공의 운명이 정말 비극적인지, 또 그 “비극적 힘들”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II

소설은 서문과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권은 로즈메리의 눈에 비친 주인공 디크의 34세때 모습이다. 리비에라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는 상류계급들의 모습이 디크부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18세의 여배우 로즈메리가 본 디크는 생의 활력을 잃지않은 매력있는 부유 계급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로즈메리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데 이 심리

3) Andrew Turnbull ed., *The Letters of F. Scott Fitzgerald*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3), pp. 3, 5, 529, 530 참조.

4) Matthew Bruccoli는 최근에 이 창작과정들을 연구하여 3개의 version 과 18단계의 구성과정을 *The Composition of F. Scott Fitzgerald's Tender is the Night: A Study Based on the Manuscripts*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1961).에서 자세히 밝혀 놓았다.

5) Sergio Perosa, *The Art of F. Scott Fitzgeral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5), p. 108. 이 책의 102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사이에는 이 작품의 창작과정이 잘 요약되어 있다.

6) Ibid., 109.

적 전환점과 니콜의 정신병발작에서 1권은 막을 내린다. 제2권은 그로부터 8년전 디크가 26살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래를 촉망받는 젊은 정신과 의사인 그가 어떻게 환자인 니콜과 결혼하게 되는지가 두사람의 내력과 함께 소개된다. 이어서 니콜의 기억을 통해 그후의 결혼생활이 짧게 회상되고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가 디크의 도덕적 타락이 점점 깊어짐을 보여준다. 그가 이태리운전수와 싸움을 벌이고 니콜의 언니 베이비 워렌에 의해 구출되는 데서 2권은 끝난다. 제3권은 부부사이의 역전(reverse)되는 주체의식이 그려진다. 디크가 점점 타락하여 생의 활력을 잃고 지쳐 사라지는 반면 니콜은 차츰 자신을 회복하여 완전히 디크의 힘에서 벗어나 독립을 취하게 되는 과정이다. 소설의 제목과 함께 서문은 작가 자신이 즐겨 읽던 시인 Keats의 "Ode to a Nightingale"의 한 귀절이다. 시간의 덧없음에 따른 젊음의 파괴와 죽음등, 현실의 고통을 피하여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따라 술과 잔치가 있는 영원의 세계를 꿈꾼 시인이 현실로 되돌아오며 읊는 이 귀절속에는 피체랄드 자신의 표현처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일종의 향수같은 슬픔"이 담겨있다. (it is a sort of nostalgic sadness that runs through them. *Letters*, 528) 또한 달콤한 환락의 독을 마신 주인공의 패נות은 후회가 물거품처럼 스러져가는 비극적 종말을 예고하는 듯 하다.

전체 이야기는 디크의 전락과정을 중심으로 대략 세단계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젊은 이상주의자 디크가 결혼하기까지, 두번째 단계는 결혼후 디크 자신의 말처럼 내적인 도덕성에 금이 가고 부서져도 외적인 매너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단계("The manner remains intact for some time after the moral cracks. ")⁷⁾, 세째 단계는 내적인 마멸(또는 부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단계로서 내적, 외적으로 완전히 부서져 스러지는 단계이다.

1917년의 봄, 스물여섯살의 젊은 의사 Richard Diver는 스위스의 추리히에 도착한다. 그는 코네티컷의 옥스퍼드 로데스칼라였고 존스 홉킨스에서 학위를 얻은 후 비엔나에서 후에 출판하게될 책의 뼈대가 되는 팜프렛을 쓸 정도로 젊은 나이에 능력과 야심을 소유한 의사였다. 청춘의 황금기요, 절정기에 선 그는 또한 건전한 사람들 사이에서 애정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매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를 "lucky Dick"이라고 부른다. "행운아 디크" 이 말은 그의 이상주의적 열정에 자만의 기쁨을 붓는다. 그는 공부방에서 마지막 떨감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You hit it, my boy. Nobody knew it was there before you came along." (116). 추리히의 정신병원에 도착한 후 戰時이기에 펠감을 구할 수 없던 디크는 자신이 그 때까지 모아온 백 권가까이되는 책들을 연료로 쓰게 된다. 불꽃위에 한권 한권 책을 얹으며 그는 속으로 확신한다. 책안에 있는 것을 몽땅 다 소화하고 있는게 바로 그 자신이라고("He was himself a digest of what was within the book," 116). 그리고 그로부터 5년까지도 그 내용을 요약하라면 할 수 있다고. 학자적인 재능과 야망, 장래를 약속받은 전문직업인(professional career), 게다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있는 외모, 그는 분명히 이런 외모를 의식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못 할게 없으리라는 자신감과 함께.

그러나 디크는 세상의 어려운 면이나 불행울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감아였다. ("the price of his intactness was incompleteness") 버파로에서 목사였던 아버지는 두 누이가 죽은 후 태어난 디크가 어머니의 과잉보호를 받을까하여 자신의 엄한 도덕률밑에서 키운다. 선한 마

7) F. Scott Fitzgerald, *Tender Is the Nigh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4, 1962), p. 285. 이로부터 이 책에서의 인용은 본문에 직접 페이지수로 표시하겠음.

움, 명예, 결혼, 그리고 용기보다 더한 미덕은 없다는 전통적인 도덕률이었다(204). 그는 아내가 남긴 많지 않은 재산을 디크의 대학교육에 조금씩 나누어서 보내주곤 한다. 순탄하게 예일로 로메스칼라로 존스·홉킨스로 그리고 프랑스에서 의사로 이, 삼년 실무를 닦은 후 다시 휴리히로 왔을 때까지도 디크는 세상의 어둡고 악한 부정적인 면을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The best I can wish you, my child, is a little misfortune”). 자신의 건강과 힘과 재능을 믿었고 세상사람들의 본질적 선함(“the essential goodness of people”)을 믿었던 그는 이상주의자였고 과학자이기에는 현실감과 초연함(detachment)이 부족한 낭만주의자였다. 그를 알던 어느 루마니아학자는 골절 갈등(a conflict)에 빠지곤하는 디크에게 “당신은 낭만적 철학자가 아니고 과학자요. 기억, 힘, 성격, 특히 선량한 사고방식, 이렇게 당신을 괴롭히는 요소들이 될 것이오. (117)” 라고 예언적인 충고를 한다.

이러한 디크 앞에 18살의 아름다운 니콜이 나타난다. 그녀는 미국의 대재벌인 워렌家の 딸이었다. 호칭만 없는 미국의 공작가문으로 영향력있고 어디에서나 누구의 가슴속에나 파문을 던질 수 있는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an American ducal family without a title—the very name written in a hotel register, signed to an introduction, used in a difficult situation, caused a psychological metamorphosis in people...”) 둘째딸로 열한살에 어머니를 잃은 니콜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다. 4개 국어를 할 줄 알고 음악과 미술에는 수준이상의 재질을 닦은 삶의 미각과 섬세한 취향이 훗날 배경으로 다듬어진 여자였다. 완벽하고 총명하고 어릴 적엔 밤에도 울지않던 야무진 니콜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실수로 부정(incest)을 겪게되어 정신착란에 빠져 휴리히까지 오게된다. 혼자 설 수 없는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빠진 그녀는 능력과 매력을 지닌 젊은 의사 디크에게 편지로 대화로 그의 마음을 얻으려 애쓴다. 오월의 이슬처럼 가련하고 청초한 모습으로, 외로움과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호소하는 편지로, 그러면서도 본래의 완벽하고 강인한 성격에서 나오는 끈질긴 유혹으로 그녀는 디크를 사로 잡으려한다.

자신에 대한 약간의 자만심과 허영심도 있고(“a spoiled priest”)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착하고 의협심이 강한(“a natural idealist”) 디크는 그의 사랑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름다운 니콜에게 차츰 마음이 끌린다. 동료의사들은 그녀의 사랑이 정신병자들이 흔히 빠지기쉬운 “아주 우연한 감정전이”(“a transference of the most fortuitous kind”)에 불과하다고 디크에게 경고하고 어디까지나 의사라는 직업인의 입장(“But it is a professional situation”(140))에서 환자를 대하라고 충고한다. 디크는 물론 고민하고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도 하며 갈등도 느낀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여자에게 약하고 사랑받고픈 소망이 있었다. 그가 동료의사 프란츠(Franz)에게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는 옥스퍼드에서 같은 강의를 들던 어느 여학생 때문이었다고 하는 얘기(138)는 바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보다 여자에게 더 약한 그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전통적 도덕에 근거한 의협심의 발로로 약한자를 지나쳐버릴 수가 없었다. 선량하고 친절하겠다는게 평소 그의 소망이고 보면 가끔 발작의 가능성을 지닌 정신상태가 박약한 어느 여인이 어리고 이슬같이 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인정받으려 애쓸 때 그것만큼 가련하고 슬퍼보이는게 어디 있겠는가. (“It made him sad when she brought out her accomplishments for his approval”(142)) 더구나 그여인이 너무도 아름답고 억제할 수 없는 매력(“irresistible glamor” Letters, (570))의 소유자일 때, 여기서 우리는 니콜의 미와 매력에 대해서 피체랄드가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여러 비평가들이 디크가 니콜과 결혼하게되는 심리적

동기에 신빙성이 없고 별 갈등도 겪지 않은채 주어지는 환경과 큰 타협도 없는듯하여 디크의 전략은 비극적인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디크가 니콜의 미와 매력에 끌려드는 과정, 그리고 로즈메리의 눈을 통해 강조되는 니콜의 미와 매력, 작가가 자신이 밝힌 “그건 보통의 매력이 아닌 억제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강조는 디크가 가진 본질적 약점들과 함께 그의 어쩔 수 없는 전략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자가 디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안 동료의사들이 그에게 맡긴 치료의 임무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지만 감정을 삭제하라” (“most kind and yet eliminate”)는 것이었다. 디크와 같은 낭만주의자에게는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였으리라.

디크가 니콜과 사랑에 빠지고 연민의 포로가 될 때 그녀의 富는 그에게 큰 유혹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는 그녀가 가진 배경을 꺼려했다. (“Dick wished she had no background, that she was just a girl lost with no address save the right from which she had come” (135)). 니콜의 언니 베이비 위렌이 능력있는 젊은 의사를 니콜에게 사주어 그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게되면 그녀의 정신병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 디크는 분노를 느낀다. 베이비는 디크가 그런 의사가 되기에는 너무 知的이고 성격이 강인(stubborn)하여 그를 못박아 한 얘기가 아니고 그저 던진 얘기인데도(부유한 사람들의 careless 한 면) 디크는 그 말에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 갈등을 보인다.

“Big chance—oh, yes. My God! —they decided to buy a doctor? Well, they better stick to whoever they’ve got in Chicago.” Revolted by his harshness he made amends to Nicole, remembering that nothing had ever felt so young as her lips, remembering rain like tears shed for him that lay upon her softly shining porcelain cheeks... Her beauty climbed the rolling slope, it came into the room, rustling ghost like through the curtains... (156)

이처럼 디크의 분노는 니콜의 미와 매력에 쉽사리 압도당하고 그의 갈등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만심에 쉽게 자리를 양보한다. 그는 분명 의사로서 동시에 그녀의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천명하고 친절하고 용감하고 그리하여 자격이 있다면 사랑도 받고 싶다고 생각해보면 디크. (“...he used to think that he wanted to be good, he wanted to be kind, he wanted to be brave and wise, but it was all pretty difficult. He wanted to be loved, too, if he could fit it in. 133)

의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거리감을 지키지 못한 채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몰두해 버림으로서 그가 지녔던 고귀한 이상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한 부유한 정신병자의 남편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고귀한 이상뿐 아니라 그는 유능한 의사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28세때 쓴 팜프렛은 후에 책으로 되어 교과서처럼 널리 읽히는 중요한 출판물이 된다. 연구하고 책을 쓰는 학자로서 만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디크였기에 그의 어두운 종말은 더욱 비감하다.

가난한 교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던 아버지를 볼 때는 “돈이란 본질적으로 탐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온 디크였다. 그래서 니콜과의 결혼에서 처음부터 그는 아내의 돈을 거부한다. 아내와의 사랑, 여행, 술에 조금씩 맛을 들이게 될 즈음 (“life is fun with Dick”) Nicole은 왜 내돈을 쓰면 안되고 왜 좀 더 큰 아파트에서 살면 안되느냐고 묻는다. (“Why should we penalize ourselves just because there’s more

Warren money than Diver money.” (159)

딕크가 니콜의 불만과 끈질긴 요구에 타협을 하는 때는 두 아이가 태어나고 니콜의 정신병이 다시 도지고 할 때부터이다. 아파트생활과 휴리히에 실증을 느낀 아내는 따뜻하고 조용한 해변가로 가서 큰 집을 얻고 그곳에서는 시간도 많이 얻을 것이니 과학자가 책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당신의 말처럼 책 쓸 시간도 얻자고 조른다. 그들은 리비에라에 별장을 얻었고 니콜은 이제 “Dick의 글쓰는 집”이라고 말한다. 富가 제공하는 삶의 미각에 침잠되기 시작하므로써 딕크의 내적인 도덕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Doctor Diver and Mrs. Diver 대신 Mr. and Mrs. Diver라고 기록하기 시작하는 데서 부터인 것 같다. 니콜은 이렇게 반문한다. (“You’ve taught me that work is everything and I believe you. You used to say a man knows things and when he stops knowing things he’s like anybody else, and the thing is to get power before he stops knowing things.” (162)) 일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학자가 사물에 대한 인식욕을 멈출 때 그는 사물의 노예가 된다고 말하던 딕크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평가들은 이렇게 되는 딕크의 심리적 변화에 동기가 희박하고 내적 갈등에 신빙성이 약하다고 불만을 갖기도 한다. 이는 딕크의 내적인 변화가 니콜의 회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그 부분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 원인인 듯 하다. 아무튼 이제 딕크의 주변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 앞에 딕크는 우상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친절과 유머를 즐긴다. 어느덧 그는 사교계의 주역으로 군림한다. 18세의 영화배우 로즈메리도 34세의 딕크에게 매료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아직 성공에 의해 때가 묻지않은(“unspoiled by her success”) Louis Moran 이라는 헐리우드스타를 모델로 한 로즈메리는 이 소설에서 피체랄드 자신의 말처럼 어디까지나 “a catalytic agent” (Letters, 532)이다. 비록 책의 시작부분에서 주인공으로 착각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실수(?)를 범하지만 피체랄드는 자신과 원래의 딕크처럼 어디까지나 중류계급 출신인 로즈메리를 매개체로하여 상류유한계급들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는 「위대한 게츠비」의 딕크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녀는 Nick와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도덕을 밑에서 자란 Nick가 동부로 가서 富의 세계와 그 허실, 부패등을 보고 다시 중부로 돌아가는 순수한 매개체역할과 달리 로즈메리는 상류사회와 딕크와의 관계에서 좀 더 복잡하게 개입되어 있다. 아직도 소녀티를 벗지 못한 분홍빛 뺨의 로즈메리는 밝고 크고 또렷하면서도 이슬에 젖은 눈을 갖고 있다. 이런 외모는 그녀의 개성을 잘 표현한다. 성장을 멈춘듯한 인생관, 일에 대한 확고한 태도, 그리고 낭만적인 기질등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외모이다. 그녀의 눈에 비친 딕크를 중심으로 한 리비에라 해변의 유한계급들은 (“self-sufficient little group”) 분명히 보통사람들과는 다르다. 술병을 옆에 달고 다니는 Champion이나 Abe North의 타락, Mckisco와 Barban의 대결(duel)등에 그녀는 거부반응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의 타락이 그토록 매료된 딕크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은 감지하지 못한다. 또 니콜의 미와 富에는 동경을 품지만 그녀의 고집세고 인색한 인상과 낮고 원뿔한 음성에서 富의 허실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녀의 이러한 미숙(immature)한 면은 게츠비의 Nick와 달리 작품이 끝날 때까지 성장을 보이지 않는다. 끝까지 “Daddy’s girl”로 남고마는 것이다.

8) Sergio Perosa, p. 107 참조. “Melarky Case”라고 알려진 첫번째 version의 주인공 Francis는 두번째 version에서 일부는 로즈메리로 일부는 딕크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로즈메리의 눈에 비친 유한계급들은 디크의 타락을 전조(foreshadow)한다. 니콜의 발작을 우연히 알게된 Mackisco 부인은 그 사실을 발설하므로써 니콜을 사랑하며 비밀을 지켜주려 한 Tommy Barban의 분노를 산다. 결국 소설가인 남편 Mackisco는 Tommy와 총에 의해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부인에게서 겁쟁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She’s very hard when she gets an advantage over you… I don’t see what it’s all about, I don’t see why I’m doing it.”) 이 무기력한 소설가에게 삶은 더 이상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거칠고 부도덕하고 폭력을 좋아하고 知的인 면과는 거리가 먼 Barban은 니콜을 사랑하는데 디크와는 여러면에서 대조적이다. 그도 역시 Mackisco 처럼 여자(Nicole)를 위해 목숨을 건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전통적 의미의 duel이 여기서는 확실히 하나의 우스꽝스런 소극(burlesque)으로 전락한 듯하다. 에브 노스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디크의 장래를 조명한다. 원래 유능한 음악가로서 화려하게 데뷔한 그는 Mary와 결혼하여 술에 탐닉한 이래 7년간 작품활동 하나없이 유흥생활을 보낸다. 로즈메리가 해변에서 처음 본 그는 이미 내적인 타락이 걸으로 드러난 단계이었다. 마녀를 화형시키는 것에 결사반대한다는 우스꽝스런 도덕률을 진지하게 유일하게 내세우는 그는 Mary에게 종속되어 죽을 의지밖에 아무런 생의 활력도 남지않은 공허한 보헤미안이다. 돌아갈 곳을 찾기에 너무도 오래 방황했다고 할까. 그는 일체의 대인관계가 피곤하고 여자들의 세계에도 싫증이 난다(“tired of women’s world”). 알콜에 의존하여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는 자연 소견이 좁고 모든 것을 빼놓아진 눈으로 본다(narrow and bitterness). 종족에 대한 차별의식이 생겨 흑인들과 싸움에 말려들기도 하더니 몇년 후 뉴욕의 어느 싸구려 술집에서 맞아 죽는다. 옛날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슬픈 회상속에 그의 죽음을 듣는 디크는 그가 살아있던 시절, 아직은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향수에 가슴이 터지는 듯하다. Mackisco, Barban, Abe North는 모두 여자에 대한 숭배의식속에 사로잡혀있고 특히 Barban을 제외한 둘은 자신의 주체의식(self-identity)을 여인과 유흥생활속에서 마멸시킨다. Abe North가 완전히 풍화되어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반면 Mackisco는 duel을 겪은 후 나름대로 자신의 용기를 회복하고 글을 쓴다. 그러면 디크는 어떠한가.

로즈메리가 해변에서 처음 본 디크는 친절하고 매력있고 사려깊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미덕인 자기단련과 역제의 단단한 층을 소유하고 있었다 (“The layer of hardness in him of self-control and of self-discipline”). 그의 음성은 세상에 구애를 하는 듯 듣는 이를 보호해주고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는 약속이 담겼고 눈은 밝고 차고 단단하며 푸르렀다. 그러나 그는 의사로서의 개업이나 연구대신 연신 갈퀴로 자갈을 골라 니콜을 위한 해변(“our beach”)을 만들고 있었다. 로즈메리의 구애를 거절하던 그가 어느덧 그녀와의 성적인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고(“Do you mind if I pull down the curtain?”) 짐짓 가장하며 거짓말도 하며 그녀를 스튜디오 밖에서 기다린다. 이 행동은 곧 그의 내적인 타락이 조금씩 걸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보여진다. 로즈메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녀가 주도권을 쥐게된다. 디크는 어렴풋이 자신의 공허를 의식하며 옛날로 돌아가려 했으나 니콜의 발작은 그를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한다(“Before her he must keep up a perfect front”). 결혼 초반 해도 그는 자신감이 강했고 버는 돈을 절약해서 쓰며 경제적인 독립을 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내의 발작(breakdown)이 찾아지자 그는 점점 富가 제공하는 안이와 환락속으로 침잠되기 시작했다. 마치 Diver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그는 차츰 침잠되어 드디어 Warren 家의 돈으로 clinic을 사들이게 된다. 자기억제가 강한 디크의 굴

복하지 않는 부분을 니콜은 돈으로 굴복시키고 소유하려 했다(“We own you, and you’ll admit it sooner or later. It is absurd to keep up the pretense of independence” (177)). 또한 프란즈부인의 말처럼 니콜은 점차 디크를 사로잡는데 그녀의 정신병을 무기로 이용한다. 그리하여 디크는 남편으로, 정신과 의사로 이중적 기능사이에서 점차 혼동을 초래했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마비시켰다. 그들의 관계는 여너부부들처럼 상호보완적으로 반대편에서 있는게 아니라 이상스레 하나가 되고 동등한 것이었다. 니콜은 남편의 진수를 흡수하여 또 하나의 디크가 되었고 디크는 아내의 정신분해속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는 그녀를 치료할 수가 없었다. 그의 직관은 부드러움과 동정심속에서 호느적거렸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진수(his arsenal)는 자신을 억제하는 기능을 잃고 워렌사의 금고속으로 꿀떡 삼켜져 버린 것이다. (...swallowed up like a gigolo, and somehow permitted his arsenal to be locked up in the Warren safety-deposit vaults”).

이러한 디크의 병은 너무 깊어져 몇년 후 로즈메리를 다시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sex 이외에 아무런 활력도 얻지 못한채 그들의 사랑은 실망으로 막을 내린다. 디크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에는 너무 지쳤고 로즈메리는 조금도 성장하지 않은채 여전히 직업적(professional)이고 디크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했다. 그는 점차 소견이 좁아지고 매사를 틀어지게 보고 인종을 차별하여 흑인들과 입씨름도 벌인다. 그러다가 이태리에서 술에 만취되어 운전수와 다투고 감옥에 갇히어 베이비 워렌의 도움으로 석방된다. 이를 계기로 디크의 도덕성은 베이비 워렌에게 완전히 굴복된다. 이때부터 디크의 쇠퇴(degeneration)는 가속화 된다.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자는 모두 sex의 대상으로 느끼고 정신이상으로 입원한 매력적인 여류화가에게도 의사이상의 개인감정으로 대한다. 알콜에의 탐닉은 심각해서 환자들은 clinic을 떠나고 심지어는 하녀들도 그를 더 이상 주인으로 대해주지 않는다. 무책임감과 무관심은 점점 늘어 니콜이 그를 버리고 토미 바아반에게 가도 별 감정적 변동이 없다. 그저 자신의 주체 의식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니콜에 의해 서서히 마멸되었다고 느끼지만(“You ruined me, did you?”) 어찌 해보기에는 너무 탈진하여 무기력 하기만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니콜은 점차 기력을 회복하여 디크와의 종속적 관계를 벗어난다. 디크의 알코올탐닉, 여자관계, 대인관계의 실패등을 보면서 니콜은 점차 디크에게 환멸을 느끼고 드디어는 그가 결을 떠나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쁨을 느낀다. 오랜 세월동안 그녀가 디크를 통해 배운 교훈은 스스로를 다지고 단련하고 생각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 생각하게 되면 그는 너의 힘도 빼앗아 간다는 철학이었다(290). 일종의 자기수련(self-discipline)과 자존(self-reliance)의 교훈이었다. 오직 디크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얻은 교훈이니 침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한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이러니하며 여기에 다시 작가의 비극적 관점이 엿보인다. 그녀는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되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낭만적 사랑보다 조야하고 현실적이고 성적요구를 만족시킬 상대를 찾는다. 바로 토미 바아반인 것이다. 토미는 묻는다. 언제부터 네눈에 사기꾼의 기질이 나타났느냐고? (“When did you begin to have white crook’s eyes?”)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본래 모습이라고 대답한다. (“If my eyes have changed it’s because I am well again and being well perhaps I’ve gone back to my true self. (292)”) 미국의 자수성가한 대부호의 손녀딸, 니콜. 이것이 디크가 7년간에 걸쳐 자신을 마멸시키고 찾아준 아내의 실체였다. 결국 니콜은 너무 많은 돈을 소유했고 디크는 그것과 싸워 이길 수는 없었다(“Dick can’t beat that”). 정신이상자의 “아주 우연한 감정전이”(transference)로 나타나는 사랑은 병이 완치되는 순간 디크와는 정반대 타

입인 토미에게로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드디어 의사 다이버의 치료는 끝이 났고 그는 자유로워진 것이다(“The case was finished. Doctor Diver was at liberty”(302)). 오직 너무도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디크가 일찌기 깨달아야 했던 것은 그가 처했던 상황이 “직업적인 것”(case or a professional situation) 이었고 그리하여 냉철하게 자신을 보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찌기 디크는 동료의사 프란츠(Franz)의 저녁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병원마당 한구석에 지어진 보잘 것 없는 집에서 사는 그들 부부의 가정적인 모습에 우아함도 모범적인 것도 없어 보였다. 프란츠는 과학자인 선조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나 자신의 말처럼 디크와 같은 천재는 아니었다. 다만 그는 견고했고 평범했고 언제나 밝고 사무적인 태도로 현실을 대했다. 그는 분명 낭만적 철학자가 아닌 과학자였고 디크에게는 이런 면이 부족했다. 로즈메리의 경우는 이 직업적 태도가 더욱 선명하게 디크와 대조를 보인다. 그녀는 디크와 마찬가지로 낭만적이었으면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고 “직업적 상황”을 유지해 나간다. 로즈메리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 남편을 두번 여의고 그들이 남긴 재산을 고스란히 외딸, 로즈메리에게 물려주는 어머니 엘시여사는 인생을 왜곡되었거나 피로운 시선으로 대하지 않고 명량한 인내심(“her cheerful stoicism”)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겪어낸다. 그녀는 로즈메리에게 근로의 중요성과 깨끗한 이상주의를 심어 준 후에는 그녀 스스로 세상을 보고 경험을 얻게 한다. 어머니가 입혀 준 갑옷과 스스로 얻은 도덕률에 이충으로 무장되어 로즈메리는 사소한 것, 천박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일에 열중하는 용기와 끈기를 지닌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일의 중요성을 배워 온 그녀는 영화배우가 되어 폐렴에 걸릴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휴양지를 찾은 것도 그 대가였다. 돈을 쓸 때도(완전히 자기 것으로 단정하고 쓰는 니콜과 달리) 잠시 내 손안에 들어온 노동의 대가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다.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빠뜨리지 않는 데 영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들을 고르는 게 인상적이다. 이와같이 중류출신의 로즈메리는 디크의 원래 이상주의에 아주 가깝다.

디크에게서 자신의 미덕을 발견하고 동시에 상류계급이 누리는 우아함, 남을 돌봐주는 부드러움을 느낀 그녀는 곧장 사랑에 빠진다. 쉽사리 사랑에 빠지고 부유한 사람들의 피상적인 미와 매력에 압도되는 그녀는 분명 자유분방하고 낭만적이다. 그러나 그녀의 낭만적 기질은 디크의 것과 다르다. 그녀의 활력(Vitality)은 결코 타인이나 다른 그룹에게 낭비된 적이 없는 직업적인 것이다. 상대방에게서 얻는 지혜는 모두 그녀 자신의 개체속으로 또 세상을 대하는 그녀의 마스크속으로 흡수된다. 마스크를 벗으면 낭만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실체가 존재하나 그 모든게 아름답고 단단한 껍질속에 다져져 있는 것이다. (164—5). 그녀는 자신의 활력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밀착하지 않는다. 대인관계는 언제나 주고 받는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마음에는 없지만 사업상 필요한 사람이 원할 때는 쉽사리 사랑의 행위를 벌인다. 따라서 깊이 사고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직업적이다. 그녀는 몇년 후 디크를 만나 사랑을 나누는 데 디크에게 나에게 줄게 무엇이냐고 묻는다. 로즈메리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디크가 “Rosemary is not grown up”이라고 말하며 “It’s probably better that way”라고 하는 말은 또 한번 작가의 비관적 관점을 엿보게 해준다. 성장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Daddy’s girl로 남는 것, Mask를 쓰고 깊이 사고 하지 않으며 남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매사에 사무적인 게 직업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길이라면 디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전통적 도덕률과 그의 철학(현명하고 용감하고 사랑받고 싶다는)은 현실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것이란 말인가. 아마도 아버지의 청교도적 교

혼은 전쟁을 겪기 전이나 어울릴 도덕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젊은 디크는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은” 미감이었으니까.

개인의 주체성이 마멸되는 원인은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에도 있지만 주위환경(society), 특히 여인과 부유계급, 유한계급등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있다.” 소설의 첫머리에 어느 영국남자가 여자의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신원(identity)을 밝히지 못해 애쓰는 얘기가 나온다. 여자는 남자의 신분증(I·D)을 빼놓았던 것이다. 니콜, 메어리, 로즈메리는 남자들의 반대편에서 있는게 아니라 남자들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유지해 나간다(53). 니콜은 디크의 단단한 부분을 돈과 자신의 정신병을 무기로 용해시킨다. 로즈메리의 어머니 엘시여사는 딸이 유부남인 디크와 사랑에 빠져도 아무런 도덕적 가책도 없이 딸에게 얼마든지 경험의 폭을 넓히고 얻을 것을 얻으라고 오히려 권장한다. 그녀는 로즈메리가 결코 다치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있지만 자신이 이제 나이 탓에서 오는 피곤으로 물러서야 겠다고 느낀 것이다. 그녀의 無도덕(amorality)은 이렇듯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에서 유래한다. “여자들이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해도 남자들에게 붙여지는 “잔인성이란 죄악으로 기소되는 법이 거의 없다”(163)라는 작가의 말은 이 소설에 도사린 작가의 여성에 대한 환멸을 엿보게 해준다. 이와 같이 남을 이용하는 이기적 속성은 부유층의 특성이기도 하다. 富의 상징인 베이비 워렌은 그녀의 이름이 나타내듯 도덕적인 면에서 어린애다. 그녀는 거만하고 계산적이고 인색하고 남을 이용하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 니콜을 위해 돈으로 의사를 사주려하고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디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디크가 6년동안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던지 단 일분도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도록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고 말하는 니콜에게 “That's what he was educated for”(312)라고 일축한다. 토미·바아반은 거칠고 야만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는 니콜을 디크로부터 빼앗으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 워렌씨는 딸(니콜)에게 저지른 불륜으로 죄의식에 빠져 피로위하다가 결국 알콜중독에 걸린다. 메어리와 레이디 캐롤라인은 레스비언들이고 캠퍼인과 프란시스코는 호모섹슈얼이다. 디크와 에브 노스는 알콜의 탐닉으로 쇠퇴한다.

이 소설에서 피체탈드는 금전만능주의, 낭만적인 허영, 현실감을 잃은 이상주의, 감상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갈망, 여성에 대한 지나친 숭배, 폭력, 이기주의, 성적 무질서, 알코올 탐닉등이 미국의 젊은이를 쇠퇴시키는 요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토록 능력(genius)과 자격(Doctor)과 선의(good-will)를 가진 디크가 파멸되었으니 누가 성공할 것인가? 에브·노스의 타락을 보며 니콜이 묻던 말, “Why is it just Americans who dissipate?”은 바로 미국의 꿈과 그 허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일 것이다. 피체탈드의 또 다른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젊은 시절의 애인, 메이지를 못잊는 주인공은 별로 몇몇치 못한 수단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는 그리도 단순하게 그녀가 남편을 버리고 자기에게 돌아와 줄 것을 믿는다. 현실감각이 없는 서부출신의 이상주의자 개츠비는 결국 여유를 즐기는 동부의 부유층, 메이지 부부에게 패배당한다.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도덕적인 면에서는 어린애로 남아있어도 된다는 것인가. 이기적인 메이지, 거칠고 야만적인 톰·부차난은 개츠비를 이용하고도 뉘우칠 줄을 모른다. 현실감각을 잃은 낭만적인 허영, 그리고 선의를 믿는 이상주의——디크 다이어의 주체성이 마멸되는 것도 바로 이런 단순함에서 출발한다.

9) “Melarky Case”로 알려진 이 소설의 초고는 1925년경 쓰여졌는데 주인공이 부딪치는 여인마다에게서 혐오와 환멸을 느끼는에서 작품이 멈춘다고 한다. “God damn these women”이 주인공의 마지막 발언이다. Sergio Perosa, op. cit., pp. 104-106 참조.

...the illusions of eternal strength and health, and of the essential goodness of people ; illusions of a nation, the lies of generations of frontier mothers who had to croon falsely, that there were no wolves outside the cabin door. (117)

개척시대의 어머니들은 나죽히 노래를 불렀다. 통나무집 문 밖에 늑대는 없다고. 그것이 거짓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불러야만 했다. 이것이 디크가 지냈던 이상주의(idealism)의 원천이었고 그것이 한낱 환영(illusion)이었음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Bibliography

Primary Sources

- Fitzgerald, Scott, *The Great Gatsb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5: rpt 1953.
- _____. *The Letters of F. Scott Fitzgerald*, ed. Andrew Turnbull,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3.
- _____. *Scott Fitzgerald: A Biography*. ed. Andrew Turnbull.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2.
- _____. *Tender is the Nigh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4, 1962.

Secondary Sources

- Eble, Eugene Kenneth, *F. Scott Fitzgerald*. New York: Twayne Publisher, 1963.
- Mizener, Arthur, ed., *F. Scott Fitzgerald: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1963.
- Perosa, Sergio, *The Art of F. Scott Fitzgeral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5.
- Stavola, Thomas J., *Scott Fitzgerald: Crisis in An American Identity*. London: Clarke Doble & Brendon Ltd, 1979.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학과 조교수